

민영화 재앙을 막기 위한

# 철도 파업에 승리를!

철도 노동자들이 예상되는 정부의 강경 탄압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파업에 나섰다. 파업 전날 전국 곳곳에서 열린 야간총회는 예상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러졌다. 청량리지구 야간총회에선 “최소 10일 이상 파업하자”, “이번에는 끝장을 보자”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파업 돌입 이전부터 곳곳에서 지지 선언이 잇따랐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노동자들을 무릎 꿇리려고 파업 전부터 철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탄압을 예고하는 한편,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대규모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팔을 걷어붙였다.

최연해도 파업 직전 마지막 교섭에서 이사회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특히, 정부는 파업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려고 “수서발KTX 자회사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짓 선동에 나섰다.

그러나 사측의 거짓 선동은 파업 대열을 흔들지 못했다. 오히려 “민영화 논란은 완전히 불식”됐다는 저들의 말은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빈축을 샀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관리자들이 공사 측 유인물을 꺼내 놓지도 못하는 분위기였다.

한편, 정부와 사측은 “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 운운하며 임금 인상은 꿈도 꾸지 말고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맹공을 퍼고 있다.

### 정의로운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은 부채에 책임이 없다. 이들은 “나라경제를 거덜”내는 “철밥통”, “이기주의”이기는커녕, 임금 수준은 주요 공기업 27개 중26위고, 복지 수준은 꼴찌다. “부채 증가가 왜 우리 탓인가? 장관들 임금이나 삭감하라”는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다.

더구나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 향상은 청년 실업을 줄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위한 조치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시민의 발’을 볼모



“짜릿하고 몽클했던” 12월 9일 열린 ‘철도민영화저지·총파업승리 청량리지구 야간비상총회’

로 “국민 모두를 위협으로 내몰 것”이지만, 정작 우리 모두의 목숨과 공공서비스를 볼모로 미친 질주를 시작하려는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KTX를 시작으로, 철도 민영화의 빚장을 완전히 풀어 헤치려 한다. 이는 철도산업을 자

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임금삭감·외주화 등의 고통을, 전체 노동계급에게는 요금 폭등과 대형참사라는 재앙을 안겨 줄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세, 신자유주의 고통전가도 관철하고

자 한다. “철도 민영화는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이라는 보수 언론들의 강조가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따라서 철도 파업은 자본가들과 그 정치인들의 고통전가 시도에 맞서 노동자·서민 모두의 안전과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다.



###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선명 진보 신문

국제주의·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노동자 연대

〈레프트21〉 철도 민영화 반대 특별 페이지  
<http://left21.com/nosale>

# 레프트21을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http://www.left21.com>

# 단호하고 대담한 방법이 필요하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모든 대화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 정부는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정부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태세 역시 만만치 않다.

정부와 공사 측의 협박과 거짓말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동요 없이 투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조합원 총회, 농성, 집회 등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현장 사업소 관리자들은 공사의 파업 자제 요청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들이밀지도 못했다.

지금 12월 10일 이사회에서 수서KTX 법인 설립이 결정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여러 지부장들은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의 분노와 실망이 클 수 있지만 파업을 굳건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옹기 주장하고 있다.

수서KTX 법인 설립을 철회시키고 정부를 물러서게 하려면 단호한 파업이 필요하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파업 효과에 타격을 주기 위해 6천 명이 넘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운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서 보듯이, 파업에서 시설·설비·장비 중단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투사들도 이 점을 잘 안다. 그래서 지난 확대쟁대위에서 많은 지부장들이 전면 파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금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강경한 탄



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업 효과가 떨어지는 필공 전술이 효과적인가, '전면 파업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여러 지부의 대의원대회나 총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정부의 불법 규정으로 이미 필공 파업으로부터 집행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 '합법성' 또는 '적법성'이라는 명분보다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사용자(정부)에 맞서는 훨씬 효과적인 무기다.

일부 동지들은 이사회에서 수서KTX 법인 설립이 통과되면 투쟁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투사들은 지금 필공 파업에 돌입하면서 도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무리수를 둔다든가 하는 따위의 이유로 전면 파업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다소 열린 전망을 갖고 투쟁에 임해야 한다.

조합원들에게 전면 파업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계속해 그들을 준비시키고, 사태 변화에 따라 전면 파업으로 확대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실제로 몇몇 지부는 전면 파업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필공' 조에 지부 간부들을 배치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이 전국에 소규모로 흩어져 있는 것(산개

전술)보다 몇몇 거점을 중심으로 점거 행동을 벌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전국적으로 교통의 요지가 되는 역들과 핵심 차량기지를 점거해 열차 운행을 마비시키는 행동을 결합한다면 파업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다. 특히, 이것이 대체 인력 투입 효과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몇몇 거점을 유지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결속력과 자신감 유지에도 더 좋다.

철도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기업 활동과 노동력 이동을 마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어렵더라도 이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때 강경 우익 정부를 물러서게 할 수 있다.

## 화물·지하철 등 운수노동자들의 대체수송 거부 선언

민주노총의 화물·운송·지하철·버스·택시 노동자들이 철도 파업 지원을 위해 대체수송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철도 파업과 화물연대 대체수송 거부가 결합된다면 "수출입 물동량이 물리는 연말에 운송업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의 열차 증편 거부도 수도권 전철 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민주노총도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을

엄호하기 위해 "경고·연대 파업"을 선언했다. 이것이 실질적 파업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12월 14일에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 민영화 저지, 철도 파업 승리, 공공부문 현안 문제로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가 철도 노동자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을 때 이런 노동자연대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



##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9백22개 단체가 참가하는 '철도 민영화 반대 원탁회의'가 철도 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법조계·언론계·종교계·보건 의료계·청년학생 등 각계에서 철도 파업 지지 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도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은 철도 분할민영화 꿈수"라며 철도공사 이사회 의결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 28 곳의 지역대책위는 철도 파업을 지지·엄호하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곳곳에서 각 지역대책위가 철도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주요

역에서 홍보전과 저녁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 5백만 명이 가입해 있는 국제운수연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철도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 추천 소책자

※ 20권 이상 구입시 20퍼센트 할인



철도 민영화 반대 시리즈 2  
철도 민영화, 재앙을 향한 탈선 —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박철, 이정원 외 지음.  
노동자연대다함께.  
3,500원

### 구입 문의

02)2271-2395, 010-8908-7912

### 추천사

박홍수 철도노조 정책팀장 (철도의 눈물) 저자  
"철도 민영화에 대해 오래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봐도 상당한 내공을 갖고 있는 책이다"

엄길용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꼼꼼하게 분석하고 대응과 방향까지 제시... 필독을 권합니다."

### 나누고 싶은 투쟁 소식과 의견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전화: 02-2271-2395,  
010-8908-7912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 연락처를 보내 주시면 <레프트21>의 철도 민영화 관련 기사를 보내 드립니다.